



어이 못 오던가 무삼 일로 못 오던가

↳ 장애물

너 오난 길에 무쇠 성(城)을 싸고 성 안에 담 싸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노코 뒤주 안에 궤(櫃)를 싸고 그 안에 너를 필자형(必字形)으로 결박하여 너코 쌍배목 외걸쇠 금거북 자물쇠로 슈기슈기 잠가 있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더니

--> 점강법, 열거법, 연쇄법, 과장법

한 해도 열두 달이오 한 달도 설흔 날의 날 와 볼 하루 없으랴

< 해석 >

어찌 못 오던가, 무슨 일로 못 오던가.

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, 성 안에 담을 쌓고, 담 안에 집을 짓고, 집 안에 뒤주를 놓고, 뒤주 안에 궤짝을 싸고, 그 안에 너를 오랏줄로 푹푹 묶어 넣고 쌍배목, 외걸쇠, 금거북 자물쇠로 푹푹 잠가 두었느냐. 너 어찌 그렇게 오지 않느냐.

한 해도 열두 달, 한 달도 서른 날인데 날 보러 와 볼 하루가 없느냐

갈래 : 사설시조

성격 : 해학적, 연정적

특징 : 점강법, 열거법, 과장법 사용으로 화자의 정서 표현

해설

이 작품은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담아 노래하고 있는 사설시조이다. 초장에서는 어이하어, 무슨 일로 못 오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방식을 통해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이 드러난다. 중장에서는 연쇄법을 사용하여 임이 오지 못하는 까닭을 묻고 있다. 임이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싸고 성 안에 담을 쌓고,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싸고 그 안에 임을 결박하여 넣은 뒤 자물쇠로 푹푹 채워 잠가 놓아 오지 못하는 것인지를 묻고 있다. 중장에 표현된 ‘무쇠 성-> 담 -> 집 -> 뒤주 -> 궤’ 등의 연쇄적 표현은 임을 보고 싶은 간절한 그리움의 마음과 그로 인해 원망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. 종장에서는 한 해도 열두 달, 한 달도 30일. 일 년 365일 술한 날 중 단 하루도 날 찾아와 볼 하루가 없겠느냐며 원망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.

